

고고실

1970년대부터 박물관에서 발굴했던 고고 유물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토기 용기문 발을 비롯하여 독무덤, 장신구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토기 용기문 발 | 土器 隆起文 鉢
보물
영선동 패총 출토
신석기

도기 말머리장식 뿔잔 | 陶器 馬頭飾 角杯
보물
동래 복천동 고분군 제7호분 출토
삼국 5세기

쇠뿔 모양의 원통형 몸통 끝은 말머리를 붙였고, 바닥은 두 다리를 빚어 평면에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자실

도자기는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손길로 빚어 탄생한 예술품입니다. 도기부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시기별 도자 공예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식 소재와 기법에 따라 도자기는 특징이 분명하고 개성도 뚜렷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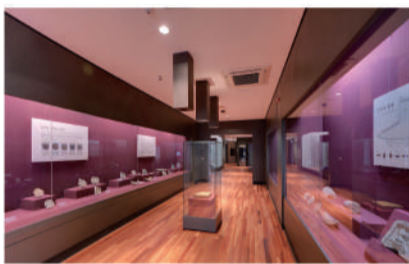
청자 상감국화문 화형 탁잔
靑磁 象嵌菊花文 花形 托盞
고려 13세기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사이부 태호
粉靑沙器 印花菊花文 四耳附 胎壺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조선



와전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와전류와 잡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와전은 기와와 전들의 출입말입니다. 기와는 지붕 재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 장식용이며, 전들은 무덤이나 지상 건축물을 쌓아 세우는 용도였습니다.



녹유보상화문 전 | 綠油寶相華文 塼
통일신라



잡상 | 雜像
조선



대당사부

천산갑

손행자

삼살보살

불교미술실

불교미술은 삼국시대부터 오랫동안 국가 후원과 개인의 염원 속에서 탄생한 불심을 예술로써 표현하였습니다. 여기는 불교조각, 불화, 사경 등 진정성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김지은니 모범연화경 권3
紺紙銀泥 妙法蓮華經 卷3
보물
조선 1422년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宜寧 菩提寺址 金銅如來立像
보물
통일신라 9세기

서화실

서화는 조선시대 옛 선조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림이나 문자, 글귀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담백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서화실은 산수화, 화조화, 인물화, 기록화, 서예 등 주제에 따라 다채롭게 선보이는 감상 공간입니다.



동궐도(1995) | 東闕圖(1995)
국보
조선 1828-1830년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궐 그림으로 거대한 궁궐과 산수가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보여줍니다.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국보
조선 1397년

민속실

민속실은 우리 옛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민속유물을 쓰임새별로 분류하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군사 무기, 과학, 생업(농업·상업·어업), 사회 생활(혼례·상례·문방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침대

전 순정효황후 주칠나전가구
傳 純貞孝皇后 朱漆螺鈿家具
국가민속유산
1930년대



의걸이장



삼층장



의걸이장(거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기록실

3층에 위치한 기록실에는 1920년대 경상남도청, 1950년대 임시중앙청, 그리고 현재 건물의 축소 모형과 수리복원 시 수습한 각종 부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흔적의 재생 복원

이 건물 곳곳에는 박물관으로 수리·복원 하면서 남긴 옛 벽체들이 있습니다. 지하 수장고부터 전시실 곳곳에 남겨져 있는 이 벽체들은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한국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흔적입니다.

3F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기록실

